

“전매제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수도권용 정책만 봇물”

지방 주택 경기 회복 ‘찬물’

지역업체, 양도세 면제 등 핵심 대책 없어 실망

정부가 내년 시행할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 대부분 수도권에만 국한된 내용에 그쳐 광주·전남 등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면제 등 핵심대책이 모두 유보됨에 따라 주택건설업체와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불만과 실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전매제한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향후 수도권의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7년에서 1~5년으로 완화된다.

또 수도권용 중심으론 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대책 완화되고, 도시재정비 사업지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 주택건설업체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수도권용 정책’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적체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추진이 일체지 중단된 데다 전매제한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시장을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광주·전남은 지난 6월에 민간 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이 폐지되고 공공택지 주택의 전매제한이 1년으

로 완화됐지만 투자심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지방 미분양의 양도세 면제 등 각종 시장 활성화대책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대대적인 부동산정책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이번 정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날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의 핵심내용이 모두 유보됨에 따라 시장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도 일부 수요자들이 양

도세 면제 여부 등에 적잖은 기대감을 나타냈으나 이날 유보 결정으로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되는 분위기다.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으로 모처럼 시장에 온기가 감지됐는데 핵심 대책 대부분이 유보돼 당혹스럽다”며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수요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의 분위기를 봤을 때 분양가상한제는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방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상한제 폐지와 함께 양도세 면제, 담보대출 규제완화 등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축산물 판매 확대 공동출하 조직 육성”

김 용 복 농협전남본부장



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생산성 제고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같은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농협조직부터 깨끗해야 한다”며 “입직원 모두가 높은 도덕성으로 무

“농업생산비가 크게 오른 반면 농축산물의 소비는 줄어들어 농업인들이 벼랑끝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농협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2일 취임한 김용복(54)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농협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농업인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를 위해 ▲농축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공동출하조직 육성 ▲단위조합·현장 중심으로 사업지원시스템 구축 ▲조합원에 대한 봉사 서비스의

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천 출신인 김 본부장은 전남대 법학과를 나와 1982년 농협에 입사했다. 전남지역본부 금융지원팀장, 중앙회 심사실장·채권관리실장·개인마케팅부 부장을 역임했다. 부인 이영순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신용·경제사업 공격적 마케팅 펼칠 터”

정 중 순 농협광주본부장



조직화와 관련, 정 본부장은 “부도를 넘기는 마음은 고객과 직원 서비스를 바탕으로 농협과 농협의 위기는 저절로 극복할 수 있다”며 “작은 개혁의 불씨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1천600여명의 임직원들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농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와 신용 등 모든 사업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

22일 취임한 정중순(54) 농협광주본부장은 “정도·윤리경영, 화합경영, 변화와 혁신경영을 통해 전국 최고의 농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특히 학연·지역중심으로 코드인사를 지양하고 도덕성과 추진력을 갖춘 능력중심의 인사를 통해 농협의 발전을 꾀할 각오”라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데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흥출신으로 농협대학교 광주대학교를 나온 정 본부장은 1978년 농협에 입사해 농협전남지역본부 지축추진팀장, 장흥·화순·영광군지부장을 두루 거쳤다.

부안 한해옥 여사와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 LPG 판매가 ‘천차만별’

가격편차 전국에서 가장 커 ... 인터넷에 공개도

광주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LPG 판매가격의 총전소간 편차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 가격은 1kg당 1천62원, 최저가격은 985원으로 가격차이가 77원에 달했다. 특히 1kg당 985원(무등LPG총전소)은 전국에서 가장 싼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주유소 가격공개에 이어 액화석유가스(LPG) 총전소의 가격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한국석유공사 가 운영하는 주유소 종합정보 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전국 총전소별 LPG 판매가격을

23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전국 1천600여개 총전소 가운데 이날 현재 정보공개에 동의한 830여곳을 우선 공개한 뒤 공개대상을 늘려나가고 총전소 가격 외에 할인이나 세차, 정비 가능여부 등 부가 서비스 정보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총전소간 가격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은 광주시와 전북으로 가장 저렴한 곳과 가장 비싼 곳의 차이가 1kg당 77원에 달했다. 반면, 제주도와 서울은 역대 가격차이가 각각 4원과 6원에 불과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바로 만든 소주입니다

장태평(오른쪽)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한상률(오른쪽 두번째) 국세청장, 허영만 회백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아름다운 배설 출시 행사에 참석해 바로 만든 소주와 막걸리·와인 등을 시음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같은 술인 ‘RTD’(Ready To Drink)의 약자) 제품으로 주세법상 ‘과실주’로 분류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용하지 않아 천연과즙의 색소를 눈으로 보면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알코올 도수 5도인 이들과 와인 은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는 음

신세대 겨냥 후르츠와인

보헤B&F 2종 출시

보헤B&F(대표이사 임현우)가 신세대를 겨냥한 후르츠와인 ‘오렌지&망고’와 ‘자몽&구아바’를 22일 출시했다.

이들 제품은 열대 천연과즙에 화이트 와인을 블렌딩한 퓨전 와인으로, 상큼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또 인공색소나 합성보존료를 전혀 사

光銀 ‘우리모두론’ 대형 판매

우리파이낸셜 신용 대출 상품 최저 금리 7.39%

광주은행이 23일부터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파이낸셜의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모두론’에 대한 대형판매에 들어갔다. ‘우리모두론’은 금리 최저 7.39%, 대출한도 최대 9천만원으로 만 20세 이상 56세 이하 직장인, 전문직종사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은행측은 ‘우리모두론’이 은행권보다 금리는 다소 높지만 개인

신용도 등을 완화해 은행권에서 대출이 힘들었던 고객들이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은행 신용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우리모두론’ 상품을 적극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현대·기아차 그룹

김익환 부회장 사의

현대·기아차 그룹은 기아차 김익환 부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아차 사장을 지냈던 김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기아차 부회장을 맡아 국내외 판매와 기획, 노사관계를 총괄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김 부회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까지 그의 거취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의 사임이 결정될 경우 기아차는 정몽구 회장과 조남홍 사장 2인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